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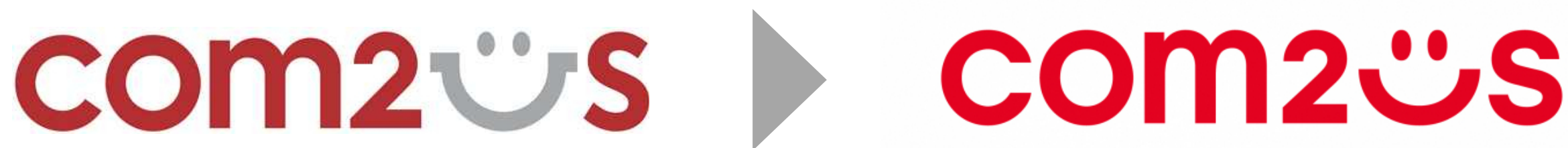
알아두면 쓸모있는 브랜딩 뉴스



B R A N D  
O P E N  
N E W S  
D I G E S T

Vol. 280





## 컴투스 그룹, 새 CI 공개 “종합 콘텐츠 플랫폼 기업 도약”

글로벌 종합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컴투스 그룹의 혁신적인 미래를 표현

컴투스가 그룹사의 새로운 비전과 통합의 의미를 담은 신규 기업이미지(CI)를 30일 공개했다.

신규 CI는 컴투스홀딩스 사명 변경과 컴투스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하나의 브랜드로 선보이는 통합 이미지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아우르며 글로벌 종합 콘텐츠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컴투스 그룹의 혁신적인 미래를 표현했다. 컴투스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스마일 아이콘은 더욱 간결해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일상과 여가의 조화, 현재와 미래의 연결을 통해 만들어 나갈 우리 모두의 웃음을 나타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더불어 CI 전체에 한층 밝아진 '컴투스 레드' 색상을 단색으로 적용했다. 새로운 CI는 컴투스와 컴투스홀딩스, 컴투스플랫폼 등 주요 그룹 계열사와 모든 해외법인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컴투스 관계자는 "컴투스라는 통합된 브랜드를 중심으로 각 그룹사의 핵심 역량을 결집해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의정부시 가능동, 벽화조명 설치해 지역명소로 탈바꿈

인생을 테마로 한 감성적인 벽화에 입체형 조형물과 로고젝터를 제작 설치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가능동(동장 홍승의)은 The G&B City 프로젝트 일환으로 의정부중학교에서 의정부고등학교 후문 200M 구간에 대해 추가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2020년 8월부터 가능동 뉴딜특화사업으로 자생단체가 참여해 의정부중학교에서 의정부공업고등학교 후문 담장 300M 구간에 대해 벽화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6월에는 의정부공고 후문 100M 일부 구간 벽화 조명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이 지역은 주변 4개 학교 학생 및 교사 3천여 명과 인근 아파트 주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야간에는 부족한 조명시설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통행량이 저조했으나, 의정부 최초 입체감 있는 벽화 조명 사업을 추진해 의정부 지역 명소로 탈바꿈했다. 인생을 테마로 한 감성적인 벽화에 입체형 조형물과 로고젝터를 제작 설치해, 야간 조도 개선으로 주민 안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 장소로도 활용됐다.

# 개교 50주년 기념 VISION 선포식

## 인천재능대학교 VISION 선포

김진형 | 인천재능대학교 총장



## 인천재능대, 창의적 AI 중심대학' 비전 선포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

인천재능대학교가 29일 '개교 5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천재능대는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스스로 학습 철학으로 만드는 창의적 AI(인공지능) 중심대학'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지난 50년간 역사를 되돌아보고,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서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인천재능대는 1971년 대한전자공업전문학교로 시작했다. 1997년 학교법인 재능학원이 인수해 학교명을 '재능대학'으로 바꾼 뒤 2011년에 이르러 지금의 '인천재능대학교'가 됐다. 2015년에는 송도국제도시에 송도캠퍼스를 개원했고,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를 특성화해 AI 시대에 맞는 직업관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인천재능대 김진형 총장은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를 특성화하고 '지역사회 대학(Community College)'로 봉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며 "직업 교육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교수 역할의 재구성 그리고 긴밀한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평생직업교육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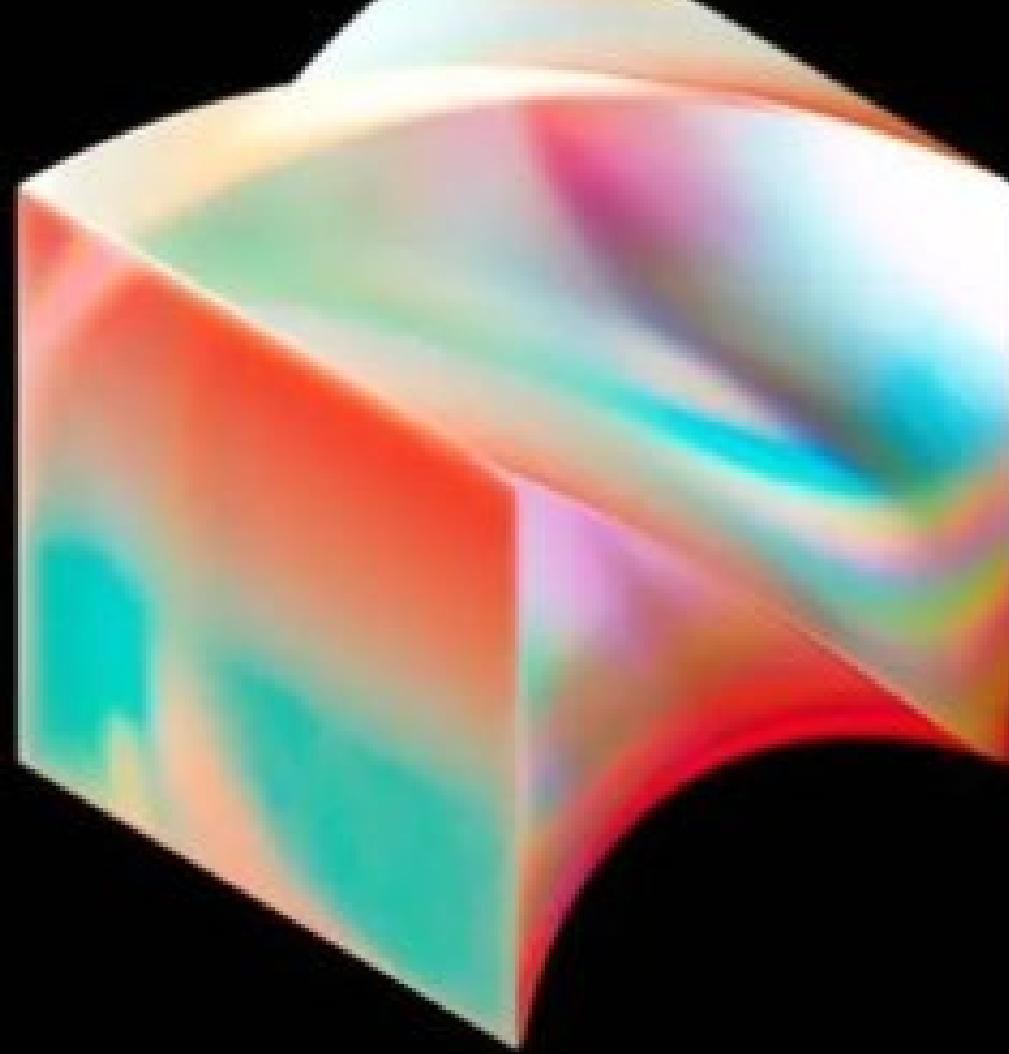
# SOLUM

Solution provider.

## 솔루엠, 기업 로고 첫 교체

모듈 넘어선 솔루션 공급기업 의미 담아

정보통신(ICT) 전문기업 솔루엠이 회사 설립 후 최초로 기업 CI(로고)를 교체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바뀐 솔루엠의 로고는 솔루엠이 모듈 사업에만 국한된 회사가 아닌 전원, 전자가격표시기(ESL), 사물인터넷(IoT), 센서, 반도체, 헬스케어 등 B2B와 B2C 사업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솔루션 공급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솔루엠 관계자는 "글로벌 톱(Top)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당사 임직원의 의지를 반영해 한글을 뺀 순수 영문 만으로 새 로고를 구성했다"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당사 ESL 신제품 '뉴튼'의 로고와도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솔루엠은 ESL 사업에서 3년 내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IoT, 배터리관리시스템(BMS), 헬스케어, 센서, 태양광 가로등 등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미래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회사는 올해 신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7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BLOCK

## 트위터 떠난 잭 도시, 스퀘어 사명 `블록`으로 변경

판매자 비즈니스를 위해 브랜드 구축

잭 도시 스퀘어 최고경영자(CEO)가 사명을 바꾸며 암호화폐(가상자산) 옹호론자로서의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트위터 공동창업자이기도 한 그는 최근 트위터 CEO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1일(현지시간) 미국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도시 CEO는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난 지 이틀 만에 스퀘어의 이름을 '블록'(Block)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사명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의 종목명은 기존의 'SQ'를 그대로 사용한다. 또한 스퀘어의 비트코인 전담 사업인 스퀘어크립토도 '스파이럴'(Spiral)로 이름이 변경된다. 스퀘어 측은 "블록이란 이름은 블록체인 사업을 의미할 수 있다"면서도 "블록으로 구분된 도시 지역 비즈니스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음악을 함께 듣는 소규모 모임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블록)을 해결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등 많은 의미를 갖는다"고 사명 변경의 배경을 사업 확장으로 설명했다.





## 멕시코도 33년 만에 엠블럼 교체 “카타르 월드컵 대비”

멕시코 국기 색(초록-하양-빨강)을 활용

멕시코 축구대표팀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엠블럼을 교체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멕시코 축구협회(FMF)는 1일(한국시간) “33년 만에 새로 만든 우리 대표팀의 엠블럼을 공개한다. 멕시코 축구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을 담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멕시코 국기 색(초록-하양-빨강)을 활용했으며, 독수리와 축구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라고 소개했다. 멕시코 축구협회장 온 데 루이사는 “멕시코 축구가 걸어온 지난날을 새 엠블럼에 담았다. 그와 동시에 현대적인 의미도 담아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디자인 관계자들로부터 조언을 받았다. 특히 멕시코 대표팀의 스폰서 아디다스가 많은 도움을 줬다. 반응이 긍정적이라 기쁘다”라고 들려줬다.



## 센트온, 경기도와 9곳 생태관광거점 향기마케팅 진행

생태관광거점 상징 시그니처(CI) 향기 담은 디퓨저

향기마케팅 전문기업 (주)센트온(ScentOn)이 경기도와 손잡고 경기도 내 생태관광거점 9곳을 모티브 한 시그니처(CI) 향을 제작해 생태관광거점 방문객 대상으로 공동 향기마케팅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금번 향기마케팅 프로젝트는 경기도내 생태관광거점 9곳의 생태 자원과 특징을 살린 향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향과 더불어 전국 각 지역의 향기 개발을 연구하고 있는 센트온에서 개발되었다. 생태관광거점 프로젝트로 개발된 향기는 화성 우음도-저녁 노을에 붉게 물든 우음도향, 평택 바람새 마을-푸르른 들판 위를 노니는 바람새향, 고양 장항습지-무더운 여름 싱그러움을 가득 안은 장항습지향, 파주 질오목 마을-재두루미가 다시 찾아오는 초록빛 습지 오금리향, 포천 한탄강 생태문화체험센터-깊은 협곡 사이 흐르는 물결 한탄강향이다. 유정연 센트온 대표는 “경기생태관광거점 시그니처(CI) 향 개발은, 각 관광지의 특징을 담은 향기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간직되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 로지텍, 레트로 디자인 적용한 무선 기계식 키보드 출시

이모지 키캡과 화사한 컬러로 디자인하여 개성 표현에 용이

로지텍이 작업 활용도를 높인 ‘로지텍 POP Keys 무선 기계식 키보드’를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POP Keys는 커스터마이징 무선 키보드다. 키보드와 함께 제공되는 8가지의 이모지 키캡은 메신저를 통한 의사소통 시, 빠르고 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키캡은 최대 4개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교체도 쉽다. 더 다양한 이모지를 활용하고 싶다면, 로지텍 자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후 원하는 종류의 이모지를 단축키에 적용하면 된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해 이모지 대신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 기능을 설정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업무 활용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스냅 스크린, 마이크 음소거와 미디어 컨트롤, 음성 받아쓰기 등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12개의 단축키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작업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블루투스 사용이 어려울 경우 Logi Bolt USB 수신기로 페어링 후 사용하면 된다. 로지텍 코리아 윤재영 지사장은 “이번에 출시된 로지텍 POP Keys 무선 키보드는 이모지 키캡과 화사한 컬러로 디자인하여 개성 표현에 용이한 무선 키보드”라며 “업무 공간에 새로운 분위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단축키 기능은 업무에도 유용해 Z세대 맞춤형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ZEGNA

## 이탈리아 럭셔리 남성복 '제냐' 리브랜딩

제냐 패밀리의 유산을 기념해 세련된 아름다움과 에티튜드를 담아

에르메네질도제냐그룹(회장 질도 제냐)의 럭셔리 남성복 '제냐(ZEGNA)'가 올해 창립 111주년을 맞아 새로운 로고와 시그니파이어를 선보였다. 새로운 로고는 '제냐(ZEGNA)'라는 심플해진 브랜드명으로 제냐 패밀리의 유산을 기념하며 더욱 세련된 아름다움과 에티튜드를 표현하고, 모던해진 폰트를 통해 브랜드의 지향적인 비전을 상징한다. 또한 지난 110여년 간 제냐가 이루어 온 것들과 앞으로 이룰 것들을 그래픽화한 비큐나 컬러의 더블 스트라이프 '시그니파이어'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리브랜딩에 이어 오는 3일에는 스페셜 캡슐 컬렉션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 컬렉션은 브랜드의 시작과 연관된 이탈리아 북부의 피에몬테 산맥에서 영감을 받은 아웃도어와 윈터 스포츠 컬렉션으로, 새로운 로고와 시그니파이어가 적용되는 첫 번째 컬렉션이다. 시그니파이어는 앞으로 출시되는 제냐의 모든 컬렉션에 적용될 예정이며, 새로운 로고는 2022년까지 전 세계의 제냐 리테일 매장에 설치 완료될 계획이다.